

신안군, 제1회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수료식

11월 7일 개강해 12월 16일까지 매주 월·금 진행
스피치 등 교육생 눈높이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신안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2년 제1회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기초과정)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수료생들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지난 11월 7일에 개강하여 12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진행되었으며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신안군은 올해 각 읍·면 홍보를 통해 정원지킴이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신안군 정원 자원의 이해 및 명품 해설을 위한 스피치 교육 등을 제공하였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박우량 군수는 "1심 1

테마정원을 만들어 가고있는 1004섬에서 정원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크며 대외적인 신안군 정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신안군 정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에 말을 전했다. 한편, 신안군은 2023년 상반기에 제2회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 양성교육(기초과정)을 한 회 더 진행 후 기초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테스트를 거쳐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뒤 정원지킴이(정원해설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귀농귀촌 활성화
위한 캐릭터 공모전 개최
공모기간 내년 1월 19일까지

함평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함평군은 "귀농귀촌 홍보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귀농귀촌 캐릭터 공모전'을 내년 1월 1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군민, 관내 학교 학생, 군 공무원 등이며, 개인 또는 팀(3인 이하)으로 참가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함평의 정체성을 담은 기발한 캐릭터와 명칭을 제작해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gaeble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캐릭터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31일 최종 결정된다. 상금 규모는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친환경농산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훈기자



목포시,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 발굴에 집중
미식페스타 개최·쇼미더9미 등

목포시가 젊은 층을 공략할 목포의 맛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의 맛' 시책의 일환으로 목포의 대표 맛인 9미(味)의 브랜드화에 노력해온 시는 더 나아가 '청년이 좋아하는 맛,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들어 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에 필수적인 레시피 브랜드화 전략과 MZ세대 입맛을 겨냥한 맞춤형 레시피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기존 음식행사의 틀을 깨고 미식의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음식축제인 목포미식페스타를 개최해 목포의 맛을 주제로 한 공연, 푸드아트 퍼포먼스, 토크쇼 등을 펼쳐 목포의 맛을 색다르게 해석했다. 목포항구축제에서도 '목포 맛보기'의 일환으로 '쇼미더9미'를 열고 음식을 전공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기존의 9미 음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9미를 홍보하고 MZ세대의 입맛과 취향을 공략할 레시피 발굴을 위해 '목포9미푸드콘테스트'를 열었는데 많은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져 9미와 목포 맛의 인기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대표 맛인 9미로 청년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레시피를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들도 좋아하는 맛을 브랜드화해 목포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채본부

무안군, 2022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우수기관 표창

무안군은 2022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만원 포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남도음식거리 홍보 등 시·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남도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15개 시·군에 조성된

남도음식거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무안군은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을 위해 맛도남도 음식점 중 대표 7개소가 요리 개발팀으로 참여해 낙지단품요리 및 낙지한상요리 개발과 YD축제 연계 무안낙지거리 홍보관 운영, 무안 방문의 달 행사 낙지한집 뽕기 경품행사, 낙지 포토존, 주차장 조

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산 군수는 "이번 수상을 기반으로 내년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음식 테마거리인 무안낙지거리 남도음식거리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청렴연극 '버들치들' 상연...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버들치' 물고기 활용조직생활 다양한 상황 전개



영암군은 지난 12월 22일 영암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극 '버들치들'을 상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극은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버들치'라는 물고기를 활용하여 버들치 같았던 동료들이 조직에서 오히려 부담함을 겪거나 에스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오춘상'이라는 인물의 일상과 그 속에 벌어지는 내적갈등(ucc공모전 기념품 구매관련 청탁요청)을 통해 전개하며 조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특히 신입사원 역할로 관객들의 직접참여를 유도시킴으로써 스토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청렴한 조직생활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연극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통해 실제 우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영광군은 지난 22일 실과소 직원 대상으로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2023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정책방향에 따른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을 발굴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정부예산안 및 각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분석 등의 강의와 문화관광, 신활력 창조, 재난안전 등 8개 분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써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켰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규 공모과제를 발굴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예산 1조 시대를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